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599>

JCCT 2021-11-73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이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s on College Students' Foundation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방형욱*

Hyong-Wook Pang*

요약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대학에서 제공받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전공만족과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경기, 충청, 경북, 전라도의 2년 및 4년제 대학교 5개 대학에 재학중인 248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6.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기술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교육지원/창업활동지원이 기회동기와 성취동기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모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교육지원/창업활동지원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 및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지원과 창업활동지원 프로그램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주요어 : 창업프로그램 지원, 창업동기, 창업의지

Abstract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investigated how start-up support programs provided at colleges affect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participants included 248 students from five colleges two-four-year colleges located in Seoul, Gyeonggi-do Province, Chungcheong-do Province,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Jeolla-do Province. SPSSWIN 24.0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mong various forms of support for business start-up, support for education on start-up and support for start-up activitie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tudents' opportunity motiva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pportunity motivati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dependence motivation all positive influence on the students' resolution to start a business support for education on start-up and support for start-up activities had positive impact on th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llege programs that support students' business start-up need to be developed and applied with a focus on support for education on start-up and support for start-up activities to enhance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stimulate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Key words : Start-up Support Programs, Foundation Motiv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정회원, 위덕대학교 외식산업학부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0월 30일, 수정완료일: 2021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8일

Received: October 30, 2021 / Revised: November 3, 2021
Accepted: November 8, 2021

*Corresponding Author: hwpang@uu.ac.kr
Division of Foodservice Industry, Uiduk University, Korea

I. 서론

1. 문제 제기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공기업 및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의식함양과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업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진로지도 및 창업설계 수업 등을 통해 창업 준비부터 창업 후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는 창업교육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교육설계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인력 확보 및 창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창업 구체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차별화된 효과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은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인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기업과 청년 사업가들을 배출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성공적인 창업과정을 위해서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창업 마인드와 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영, 경제적 사고를 길러 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1], 이러한 창업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은 대학생들의 창업활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2], 창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창업동기 활성화와 구체화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세분화, 전문화, 체계화된 실질적인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대학에서 제공받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에 대해서 전공만족과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창업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고 대학생의 취업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지원교육이란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지도하여 주는 교육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포함한 미래 창업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이정란(2016)[5]은 대학생에서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교육지원(대학생들에게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 지원), 창업활동지원(창업 초기 단계에서 대학생들에게 컨셉 개발과 관련된 인식, 동기, 그리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공), 창업사업화지원(창업 후반기에 개별지원이 아닌 기업에 지원금 제공, 대학의 명성 대여 등 목표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2. 창업동기

창업동기는 창업을 희망하거나 결정하게 된 추진동기나 사유와 관련있는 개념이다. 창업동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Gilad and Levine(1986)[6]의 푸시-풀이론(push-pull theory)이다. 대표적 풀(pull)요인으로는 독립심, 성취욕구, 사회적 사명 등이 있는데 창업기회의 매력과 창업이 가져 오는 긍정적 결과를 포함한다. 대표적 푸시(push)요인으로는 직업불만족, 실업, 저임금 등이 있는데 창업선택을 강요하는 부정적 상황을 포함한다.

이주현·배병운(2008)[7]은 Maslow의 욕구계층설에 기초하여 상위욕구 만족추구형 창업동기와 하위욕구 만족추구형 창업동기로 구분하였다. 하위욕구 만족추구형 창업자는 하위욕구의 만족을 위해 창업하고 상위욕구 만족추구형 창업자는 상위욕구에 의해 창업행동이 유발되어진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3. 창업의지

하나의 사업체가 탄생하기 위해 계획이 구체화되는 일련의 행동을 창업활동이라 하고, 이러한 창업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창업의지라고 한다 [8]. Krueger et al.,(2000)[3]는 창업의도를 창업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상태라 정의하고 [9], 창업의도가 높은 것은 취업보다 창업에 더 호의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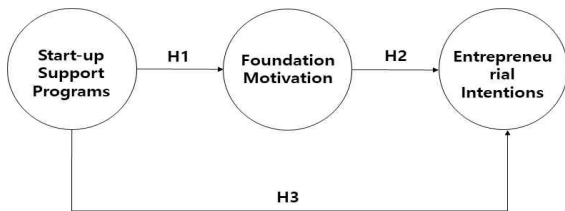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가설 설정

오혜미, 이창영, 김진수(2014)[10]의 연구에서 여성창업의 심리적 요인들이 창업효능감의 탐색, 계획, 실행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적 요인들과 개인적 요인들은 집행, 실행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환(2015)[11]의 연구에서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은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비창업가들의 창업동기는 그들의 창업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aeed et al.(2015)[13]은 파키스탄에 위치한 다섯 개의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정적 성공, 자기실현, 역할, 혁신, 인정, 독립 등과 같은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창업동기

와 비경제적 창업동기 모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있었다 [14].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정란(2016)[5]은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만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지원과 사업화 지원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희와 강진희(2013)[15]의 연구에서 창업지원 교육과정이 대학생들의 학교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적 요인을 강화할수록 대학생들이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정란과 장규순(2018)[16]의 연구에서는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은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창업활동 지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학생들의 설문조사 협조가 이루어진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북, 전라도의 2년 및 4년제 대학교 5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이 중 265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체크가 불성실 하거나 다수의 답을 기입한 17부를 제외한 248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은 SPSSWIN 24.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표 1.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Items of the Construct Concept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Rationale	Item
Start-up Support Programs	Support for start-up education, support for start-up activities, and support for start-up businesses that college students receive from their universities	Lee Jung-ran (2016)[5]	16
Start-up Motivati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motivate start-up behavior	Shan Liang (2019)[17]	15
Resolution	Changing for start-up willingness after completing the start-up education program	Ahn, Tae-Uk et all. (2017)[18]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School Grade, Income, Region of origin, Housing type		5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로 남성은 134명(64.4%), 여성은 74명(35.6%)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이 48명(23.1%), 2학년이 78명(37.5%), 3학년이 38명(18.3%), 3학년이 44명(21.2%)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는 인문사회 계열이 32명(15.4%), 자연계열이 70명(33.7%), 공학계열이 10명(4.8%), 예체능계열이 50명(24.0%), 사범(교육)계열이 8명(3.8%), 기타가 38명(18.3%)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 평균 총소득정도는 100만원 미만인 20명(9.6%), 100-200만원 미만인 36명(17.3%), 200-300만원 미만인 52명(25.0%), 300-400만원 미만인 28명(13.5%), 400-500만원 미만인 18명(8.7%), 500만원 이상이 54명(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는 자가 120명(57.7%), 하숙이 2명(1.0%), 자취가 66명(31.7%), 기숙사가 2명(1.0%), 기타가 18명(8.7%)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였으며, 요인내 집중타당도와 요인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요인의 회전방법은 배리맥스(Varimax)법을 이용하였다. 요인화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치 0.4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화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창업프로그램지원 요인을 구성하는 차원은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의 총분산은 81.509%, Cronbach's α 값이 .957 이상으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별 특징에 따라 '창업교육지원/창업활동지원', '창업사업화지원'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대학생 창업동기 요인을 구성하는 차원은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의 총분산은 81.509%, Cronbach's α 값이 .957 이상으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별 특징에 따라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로 각각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의지를 구성하는 차원은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의 총분산은 73.061%, Cronbach's α 값이 .923으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목별 특징에 따라 '창업의지'로 명명하였다.

V. 결론

1. 가설 검증 결과

대학생의 창업프로그램지원과 창업동기, 창업의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위하여 상기 3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가설 1에서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은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교육지원/창업활동지원이 기회동기와 성취동기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사업화지원은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 2의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모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2. 가설 검증 결과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Hypothesis	Independent variable	B	S.P.C	Beta	T	p	Tol	VIF	
Hypothesis 1	Constant	2.614	.183		14.287	.000			
	Support for start-up activities	.424	.086	.554	4.930	.000**	.323	3.101	
	Support for start-up commercialization	.091	.079	.129	1.147	.253	.323	3.101	
	Dependent variable : opportunity motivation R ² = .206 Adjusted R ² = .198 DF= 2 F= 25.284 p= .000								
	Independent variable	B	S.P.C	Beta	T	p	Tol	VIF	
	Constant	1.959	.200		9.785	.000			
	Support for start-up education/activities	.329	.095	.381	3.468	.001**	.316	3.166	
	Support for start-up commercialization	.098	.087	.124	1.129	.260	.316	3.166	
	Dependent variable : achievement motivation R ² = .239 Adjusted R ² = .232 DF= 2 F= 31.296 p= .000								
	Independent variable	B	S.P.C	Beta	T	p	Tol	VIF	
	Constant	2.241	.229		9.800	.000			
	Support for start-up education/activities	.139	.108	.152	1.286	.200	.316	3.166	
	Support for start-up commercialization	.178	.099	.213	1.799	.074*	.316	3.166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motivation R ² = .122 Adjusted R ² = .113 DF= 2 F= 13.792 p= .000 S.P.C=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Hypothesis 2	Independent variable	B	S.P.C	Beta	T	p	Tol	VIF
Constant		.005	.247		.019	.984			
opportunity motivation		.400	.091	.318	4.414	.000**	.463	2.159	
achievement motivation		.370	.083	.332	4.456	.000**	.434	2.305	
independent motivation		.181	.066	.174	2.753	.006**	.606	1.649	
Dependent variable :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R ² = .523 Adjusted R ² = .516 DF= 3 F= 72.403 p= .000									
Hypothesis 3	Independent variable	B	S.P.C	Beta	T	p	Tol	VIF	
	Constant	1.690	.220		7.679	.000			
	Support for start-up education/ activities	.440	.104	.460	4.226	.000**	.316	3.166	
	Support for start-up commercialization	.048	.095	.055	.502	.616	.316	3.166	
	Dependent variable :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R ² = .256 Adjusted R ² = .249 DF= 2 F= 34.233 p= .000 S.P.C=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마지막으로 가설 3은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교육지원/창업활동 지원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사업화지원은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2. 연구의 시사점

실증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교육지원/창업활동지원이 기회동기와 성취동기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사업화지원은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회동기, 성취동기, 독립동기 모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교육지원/창업활동지원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중 창업사업화지원은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 및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지원과 창업활동지원 프로그램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사업 준비단계부터 창업 후 상품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전반적인 창업지도가 필요하며, 학생들도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공지식과 개인역량을 높여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선순환적으로 연결될 때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낮아질 것이고 창업의지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은 취업지원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창업을 통한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학의 창업교육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모의창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정부 지원자금을 잘 받기 위한 차별화 없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창업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운영이 요구되며 이론전문가와 실무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케이스 스터디 형식, 사례중심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창업전문가 멘토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Han G. S., "The Systematization Pla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 47, pp.379-405, 2007.
- [2] Park Y.S., Ko J.Y., "The effects of prospective foodservice entrepreneurs psychologic characteristics upon the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skill, will to inaugurate an enterpris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 14, No. 1, pp.157-179, 2011.
- [3] Kim M.S., Kim Y.G.,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 15, No. 4, pp.61-84, 2012.
- [4] Park N. G.,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 Support on Employment R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5, No. 4, pp.97-108, 2020.
- [5] Lee J. R.,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 & 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 University of Kookmin, A Master's thesis, 2016.
- [6] Gilad, B. and P. Levine, "A Behavior Model of Entrepreneurial Suppl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4, pp.45-53, 1986.
- [7] Bae, B.Y., Lee, J.H.,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Regulatory Focu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21, No. 1, pp.91-117, 2008. <http://dx.doi.org/10.24878/tkes.2018.13.2.029>
- [8] Kang, J.H., Kang, J.H., "Study on the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Curriculum of the University of the Food Service Related to School Satisfac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urism Research, Vol. 28, No. 2, pp.201-224, 2013.
- [9] Krueger, N.F. Jr, M.D. Reilly & A.L. Carsrud,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 No. 5, pp.411-432, 2000.
- [10] Oh, H.M., Lee, C.Y., & Kim, J.S., "The Study on the Women Entrepreneurs' Psychological, Environmental, Personal Factors Affecting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Vol. 9, No. 2, pp.45-60, 2014.
- [11] J.H. Yang, "A Study of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4, pp.2564-2572, 2015.
- [12] Krueger, N.F. Jr & D. Brazeal,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January, pp.91-104, 1994.
- [13] Saeed S., Yousafzai, Y.S., & A. Engelen, "On Cultural and Macroeconomic Contingencies of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 Performance Relation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 Practice, pp.255-290, 2014.
- [14]Bae, B.Y., Lee, J.H.,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Regulatory Focu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3, No. 2, pp.29-52, 2018. <http://dx.doi.org/10.24878/tkes.2018.13.2.029>
- [15]Kang, J.H., Kang, J.H., “Study on the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Curriculum of the University of the FoodService Related to School Satisfac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urism Research, Vol. 28, No. 2, pp.201-224, 2013.
- [16]Lee, J.R., Chang, G.S.,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3, No. 1, pp.43-60, 2018.

※ 이 연구결과물은 2021학년도 위덕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Uiduk
University Foundation Grant, 2021